

올해 101세

김창묵 동창만세기념사업회장

몸에 맞는 운동과 적게 먹는 것이 건강비결



◇김창묵 회장은 올해 101세지만 서울서 홍천 내촌까지 출·퇴근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지난해 100세를 지난 김창묵 동창만세기념사업회장은 지금도 서울에서 내촌 동창마을까지 출퇴근을 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1922년 6월 홍천 서석면 수하리에서 빈농의 7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다. 올해 만 100세이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101세다.

김 회장의 건강비결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과 소식(小食)이다. 배가 약간 고파야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한다. 슬하의 자녀는 2남 2녀. 큰 아

들이 71세다. 손자가 10명이고, 증손자가 6명이다. 지난해 100세 기념 문집인 아름다운 인연을 출판했다.

김 회장은 어릴 때에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4년제인 서석초교를 거쳐 6년제인 두촌초교에 편입했다. 가정이 어려워 광부들이 이용하는 밥집에서 주인집 아이들 공부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갔다. 열일곱 살에 땅 9,000여 평을 준다는 일본 교사의 권유로 만주로 가서 5년을 생활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

만 자동차와 트랙터를 공부하는 등 세상을 보는 눈을 뒀다. 1945년 해방 이후 고향이 아닌 서울로 갔다. 영등포에서 1,000여 평을 얻어 농사를 지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허사가 됐다. 전쟁당시 인민군에 이끌려가 총살당하기 직전, 예전에 도움을 줬던 한 주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다. 다시 무일푼으로 남대문에서 양말노점상을 시작했다. 열심히 살아간 덕분에 가게를 얻었고, 미군부대 구호물자와 70~80년대 호황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촌면 물결리 기미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 이후 30년 동안 1919년 4월 내촌면 물결리 기미만세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김덕원 장두와 팔렬사를 위한 선양사업과 후대를 위한 나라사랑에 일생을 바치고 있다. 척야산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그는 “내촌 물결리의 기미만세운동과 서석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고장의 자랑거리”라며 자부심이 강했다. 호는 남강(南江)이다.

남대문 시장의 남(南)자와 강원도의 강(江)을 딴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대문시장 가게는 2년 전에 사별한 아내(황봉국)의 성

서울~내촌 매일 출·퇴근, 척야산 독립운동 성지 조성 한국전쟁시기에 총살직전 구출,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 지원

등으로 사업이 번창해 어느새 회장(동창기업)이 됐다.

1986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맨발로 신문을 돌리는 소년을 보고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즉석에서 운동화 100켤레를 구입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것을 시작으로 어려운 사람과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989년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역사를 잇는

인 황(黃)자와 자신의 성인 김(金)을 따서 황금상회라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나라사랑과 각자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며 “올해도 알차게 보내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CONTENTS

02 - 새해노인 정책 ①

03 - 새해노인 정책 ②

04 - 2022년 호랑이띠의 소원

05 - 홍천무궁화수목원

06 - 마을탐방

07 - 도시재생대학

07 - 맛집기행

08 - 홍천읍 노인회장 취임사

08 - 인생칼럼



홍천군 새해 노인정책

건강 100세 맞춤형 각종 복지정책 추진



허필홍
홍천군수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올해 건강100세 맞춤형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등을 시행한다. 또한, 연령별 생애주기 지원 방안을 수립해 연령별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등 어르신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노인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식사배달사업, 노인일자리지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무료진료,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사업, 노인 안수술비 지원 사업 등

에서 처음으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인터넷 정보 활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노인들이 각종 정책들을 알 수 없는 만큼 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엇이든 상담소”를 설치해

연령별 생애주기 지원해 행복한 노후생활 계발 지난해 봉사지도원 5만원 지급, 와이파이 제공

을 펼친다. 경로당에 실버요리사 배치, 경로당 운영 결산도우미 배치등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경로당 204곳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선정해 매월 5만원씩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지역봉사 지도원은 대부분 경로당 회장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와 협약을 맺어 도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든 문의할 수 있는 안내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필홍 군수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새해 노인정책

“건전한 노년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자 율
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22년 호랑이의 해 임인년에도 홍천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노년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 상담사업, 노년사회화교육, 건강생활지원, 급식지원, 사례관리,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이 있으며 2022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확대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즉, 코로나 19로 복지사업의 양상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어르신

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 그리고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 나갈 예정이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치매 인지예방 프로그램,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커피보관함 냅킨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이 없었으면 생활이 무료했을 것이며 복지관은 어르신 삶 그 자체이며 생활터전이라고 말했다.

이동복지관 확대운영, 어르신들에 성취감 제공 맞춤 돌봄 등 내일이 기다려지는 프로그램 진행

또한, 2022년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서석, 내촌, 내면 지역의 어르신이 “함께해요 우리마을 이동복지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치매, 인지예방, 지역특성화, DIY토탈 공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즉, 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내촌, 서석, 두촌. 3개

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자유훈)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속에서도 복지사업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어르신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영 기자
(hny1985@naver.com)



홍천군노인회 새해노인 정책

“어르신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겠다”



이형주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회장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지회장 이형주)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좌절하지 않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삼았다.

노인회는 2021년 대한노인회 공모사업에 응모해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각종 유용한사업을 펼쳤다.

어르신 180여명을 25개 업체에 취업시켰다. 이

를 바탕으로 올해는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체조, 기공체조, 노래교실, 라인댄스, 미술교실, 민요교실, 스마트교실, 치매예방교실, 컴퓨터교실, 토탈공예교실, 한글교실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경로당 회장 봉사료를 월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의 노인회 원상복구, 경로당 행정도우미 배치, 경로당 회비납부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불구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최선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활기찬 생활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수자원공사 공익사업, 왕대추사업, 인턴형지원사업등 6개 기업에 20여명의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형주 회장의 각오가 남달랐다.

이 회장은 “노후가 안정되고 장수가 축복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

이 회장은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에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교통비 혜택이 없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하고, 지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어르신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 노인일자리전담센터 새해 노인정책

“어르신일자리 4,567개 확보하겠다”



박흥순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장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센터장 박흥순)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 4,567개를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을 통한 자신감 회복 등 삶의 질 향상과 건강유지를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공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1월 17일에 사업을 시작한다.

공익형 4,200명, 시장형 107명, 사회서비스형 203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30명 등 총 4,567명이다.

2021년 지난해에는 도내 어르신 일자리사업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2022년에는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일 자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박흥순 센터장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힘과 적성

지난해 도내 최우수상 수상, 일자리 창출 능력 인정 일자리 사각지대 없도록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

인정받았다. 취업형과 인턴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21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시니어 금융소비 피해예방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로부터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인력 24명을 금융기관 7곳에 파견해 공과금 수납기 사용방법 안내, 통장정리, 보이스피싱 예방 등 고령자를 돕는 도내 최초

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일자리를 원하거나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낙담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면 단위 마을 단위 구석구석을 살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선정되도록 상담과 안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영 기자
(hny1985@naver.com)



2022년 호랑이띠의 소원

“코로나19 종식. 취미를 마음껏 배우고 싶다”

올해는 호랑이띠의 해다. 그것도 흑호(黑虎)다. 검은 호랑이띠는 모험심과 명예욕이 강하고 큰 야망을 지니며 진취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호랑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우러러보는 동물의 왕이다. 민화나 민담의 단골 주인공이고 용맹스러운 영물로 사랑받는다. 그런 이유로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로 사용됐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건국신화에도 등장한다. 비록 신화에서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호랑이 숭배사상이 생겼다. 호랑이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사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올해 호랑이띠를 맞아 호랑이띠 4명의 새해 각오와 소망을 들어봤다.

맹순옥(72) 씨는 “지난해 노모가 관절로 거동이 불편해 간호하느라 어려움이 많았고, 코로나19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좀 우울했다. 그래도 좋아하는 유희를 그려 즐겼다. 또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는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9살 된 손녀와 같이 영어를 쓰며 노는 것도 재미있다. 올해도 계속 배우고 싶다. 새해 소망은 당연 건강이다”라고 했다.

임정훈(72) 씨는 “귀촌한지 몇 년 안 됐다. 성격 상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마을주민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웠다. 그래도 마을 몇몇 분들과 마음을 열어 친해져 다행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친구와 친지를 만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쉽다. 올해는 제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또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



◇맹순옥 씨



◇임정훈 씨



◇홍기복 씨



◇김순화 씨

맹순옥 씨 - 9살 손녀랑 영어 배우면서 놀고 건강하길 기원

임정훈 씨 - 주민과 친해지고 그림에 도전 아들 결혼 ‘소원’

홍기복 씨 - 폐암말기 기적 회복 색소폰 연주기회 생겼으면

김순화 씨 - 지난해 풍물 배웠고 올해 문학창작 배우고 싶어

었던 그림에 도전해보겠다. 올해 소망은 41살 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는 일이다.”

홍기복(72) 씨는 “2017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정말 절망적이고 죽고 싶었다. 그런데 주치의의 도움으로 기적으로 회복돼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될 정도로 신기한 케이스였다. 폐암 치유 원인은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스타일 때문으로 생각된다. 올해 확정적 판정을 받게 되는데 약간 걱정되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다른 바램은 없다. 노래부르기와 색소폰 연주를 즐

아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프로그램 활동이 중단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좀 잔잔해져서 색소폰 동아리가 연주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김순화(72) 씨는 “집이 좀 넓어 친구, 친지들이 자주 와서 놀다가곤 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소원해져 다소 우울한 한해였다. 그래도 지난해 판소리를 접하게 되어 흥미로웠다. 사물놀이 중에서 큰북 치는 것도 배웠다. 정말로 풍물이 신명났다. 원래 시 쓰기를 좋아하는데 쓰다 보니 한계가 있어 노인복지관에

문학창작 관련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배우고 싶다. 참 올해 선거의 해를 맞아 국민의 삶을 편안히 해줄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다. 건강도 잘 지키겠다.”

이들 호랑이띠들의 소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금처럼 건강이 유지되며 새해에도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계속 배우는 것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었다. 이들의 소망대로 새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홍천무궁화수목원

숲속힐링과 무궁화집서 소원빌며 마음 치유



◇홍천무궁화수목원(무궁화의 집)

홍천무궁화수목원이 홍천지역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홍천무궁화수목원은 2017년 7월 홍천 북방면 국도5호선 근처 31만 5935㎡부지에 조성됐다. 무궁화를 테마로 하는 국내최초의 공립 수목원이다. 2019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한국 조

보인다. 이곳을 시작으로 남궁역 광장, 천년송들을 둘러볼 수 있다. 전나무숲에는 벤치와 선베드가 있다. 무궁화 품종원 위로 오르면 낙엽송, 참나무 군락이 있는 힐링숲길이다. 이곳에 정자와 돌산 포토존이 있다.

14만그루 산책로 자연풍광 최고 좋은 문구 보며 여유 은하수길, 숲속도서관 개관 등 모든 세대 감성자극 명소

경학회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볼거리가 많고 숲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다.

무궁화수목원에는 남궁역 광장, 무궁화 조형물, 무궁화 품종원, 무궁화미로원 등 테마공원과 16개 주제원을 비롯한 무궁누리길(숲속산책로), 온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무궁화 83종 7340그루를 포함한 1300여종 14만 그루의 다채로운 수목들도 자라고 있다.

무궁화수목원 산책은 중앙광장에서 시작된다. 중앙광장에는 무궁화 꽃씨 조형물(높이 7.5m)이

산책로는 코스마다 데크를 설치해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정담을 나누고 갈수 있는 자연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 산책길 주변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당신은 참 예쁜 꽃, 사는 게 꽃 같네” 등등 좋은 문구가 적혀 있어 마음을 여유롭게 만든다.

특히 지난해 초 무궁화의 집(소망의집)과 80m에 이르는 돌담길, 루미스톤 은하수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홍천지역 최고의 야간 관광지로 부상했다.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꽃이 만발했을 때 무궁화의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SNS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야간 방문객들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은 야간조명은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봄에서 가을까지 보리와 코스모스꽃이 피면 최고의 포토존이 형성된다.

새해 들어 은하수길 끝에 있는 무궁화의 집을 찾아 위로받고, 새해 소망을 기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새해를 맞아 이곳에 설치된 종을 치면 가족에겐 희망과 화합을, 연인에겐 사랑을 얻도록 기원해 보는 기분전환의 적기다.

고해성사를 통해 새롭게 출발해도 좋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명소다.

지난해 10월에는 숲속도서관을 개관했다. 숲속도서관은 북카페와 공연장, 세미나,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3층이다. 옥상에서 무궁화수목원 주변 전망을 볼 수 있어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숲속도서관 앞에는 분홍색 토끼모양의 조각상을 마련해 새로운 포토존이 되고 있다.

숲속도서관 주화장실 옥상바닥은 무궁화 작가인 장연자·최종열 부부 도예가의 6개월간의 노력이 담긴 무궁화 모자이크 작품을 설치했다. 작품은 ‘사랑의 꽃! 역동의 꽃! 홍천의 꽃!’이라는 주제를 담아 홍천 무궁화의 역동성과 홍천에서 시작된 나라꽃 무궁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강인한 우리민족의 기상을 표현했다. 이 같은 볼거리로 무궁화수목원 방문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야간방문객까지 포함하면 3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시간은 약2시간 걸린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홍천실내신문

신규 기자 모집

활동내용	홍천 관내 소식 취재/원고 작성/교정회의 등
지원자격	60세 이상/홍천군민
신청문의	☎ 033) 430-8700/8718
접수방법	전화

건강한 노후·활기찬 노후·일하는 노후·행복한 노후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 유일의 기업형 도약·산림치유마을 추진



◇마을입구 대형간판 및 마을안내판 설치 모습

홍천군 남면 신대1리는 금낭화 힐링마을이다. 마을은 매화산(747m)과 양덕원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1916년부터 신대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금낭화 힐링마을은 마을뒷산에 있는 금낭화 군락지를 활용해 2018년 마을총회에서 결정했다. 현재 인구는 228명이 거주하고 있다.

금낭화 힐링마을은 홍천군에서 유일하게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과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등 2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 300시간 이상을 이수했다. 2018년 홍천군 창조마을대회에 남면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7000만원을 받아 마을공동토지를 마련하는 등 마을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사업은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19년 기초마을사업에 선정돼 농촌현장 포럼을 통해 마을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마을 현안과 장단점을 파악해 2단계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 마을의 기초기반 시설이 부족한 만큼 수익사업을 배제하고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선택해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마을사무장이 만든 2단계 도약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홍천군과 강원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 5억원을 받는 쾌거를 기록했다.

1차사업으로 매입한 마을공동토지는 다목적실을 신축해 헬스장을 개장했고, 생활쓰레기집하장은 반별로 조성했다.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홍

2018년 홍천군 창조마을 우수상 수상후 마을사업 본격착수 강원도내 마을단위 최초로 헬스장 탁구장 조성 자긍심 최고

천군으로부터 매입해 귀농인의 집으로 만들어 마을에 정착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사업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돼 추가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마을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추진위원회와 기금관

리위원회 구성과 마을규약을 제정한 이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마을발전 7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마을홍보를 위해 마을뒷산 여러 곳에 군락지가 형성된 금낭화를 살려 금낭화 힐링마을로 이름을 지었다.

또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산림청과 강원도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5억원을 받았다. 이사업으로 금낭화 힐링생태공원을 조성했고, 정보화 기기구입(마을애플, 노래방기기 등), 마을입구 대형간판 및 마을안내판을 설치했다. 특히, 강원도내 마을단위 최초로 헬스장과 당구장을 마련했다. 난타동아리 운영,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성배 마을사무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이 변화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2개의 마을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기초 및 기반시설이 한 단계 도약해 선진마을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

금낭화 힐링마을만들기 사업은 노인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다래동굴 조성, 하천변 코스모스 가꾸기, 마을회관 및 노인회 꽃밭조성, 마을입구꽃밭 풀 뽑기 등을 솔선수범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광호 노인회장은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에 어르신들의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고, 경로당에 대형 TV와 고급 안마의자 등을 갖추게 되는 등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노인회가 각종 마을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전소열 기자(silverhong21@naver.com)



◇다목적실을 신축한 헬스장

지역소식

도시재생대학

“지역 어르신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대학 강좌에 참여한 주민들



도시재생대학 참여자 어르신들이 많아 눈길

홍천읍 신장대리, 진리, 희망리, 갈마곡리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밝힌다’라는 목표아래 신장대리는 손잡GO! 신장개업, 희망리는 홍천여행의 시작! 희망리주민이 만드는 여행플랫폼, 진리는 진리탐구마을연구소를 통한 동네역사문화예술 자원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변화 기대감 커 각종아이디어 제출

쇠퇴하는 도심지의 각종 문화상품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사업이다. 홍천군 도시재생은 ‘홍천강 따라 새천년의 빛을

그리고 갈마곡리는 삶과 문화를 잇는 갈마곡, 새로고침을 주제로 주민커뮤니티 거점을 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말 넓은 흥천 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는데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자영업, 귀촌, 지역 활동가들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공부하고 싶었다.

도시재생대학 강좌는 도시재생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매주 월·금요일 2시간씩 1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주민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기술과 다루고, 도시재생 성공 사례지역을 탐방하고, 흥천다운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불편한 것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도시재생대학 참여자인 신호영씨는 “도심의 골목과 상권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고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관사회단체와의 긴밀히 협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진용섭 기자(chin524@hanmail.net)

맛집기행

홍천읍 올레솔뚜껑

잡내없고 촉촉하고 고소한 식감 ‘최고’

솔뚜껑은 고향집 부엌이 생각난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솔뚜껑을 열면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래서 솔뚜껑은 어머니의 따스한 정이 느껴진다. 또 옛날에는 잔칫날 임시로 만든 아궁이 위에서 전을 부쳤는데, 최근에는 고기를 굽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무쇠 솔뚜껑에 대한 향수와 고깃기름이 모두 빠지는 장점으로 솔뚜껑 고깃집이 인기를 끌고 있다.

김치, 각종 쌈 채소들로 가득했다. 삼겹살이 녹으면서 기름이 목은지에 베어 들었고, 생김치는 볶음 김치처럼 고소하고 진한 맛이 풍기면서 침샘이 흘렀다. 상추에 삼겹살 한 조각과 김치, 마늘쫀, 버섯, 과일, 쌈장을 넣고 쌈을 싸서 입에 넣으니 꿀맛이다. 삼겹살은 껍질이 붙어있어서 오겹살 같았고, 적당한 두께로 육즙을 머금고 있어 부드러워 잡내가 나지 않아 좋았다.



목은지·쌈장 만들어 손맛 느껴지고 된장소면 깔끔

겨울 찬바람이 코끝을 시리는 날, 솔뚜껑이 있는 고깃집을 방문했다. 흥천군 청소년수련관 입구 사거리에서 자리잡은 올레 솔뚜껑이다. 실내에 들어서니 좌식탁자가 10여개 있고, 탁자 중앙에 기름칠한 큰 솔뚜껑이 있었다. 주방은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정갈했다. 삼겹살을 주문했다. 삼겹살은 먹기 좋게 잘라졌고, 향신료가 뿌려져 나왔다. 무쇠 솔뚜껑에 올리니 소리와 냄새가 온몸을 자극했다. 상은 버섯과 양파, 목은지, 마늘쫀, 쌈장과 물

솔뚜껑에 구워서인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씹는 순간 고소함이 넘쳐났다.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았지만 분명 특별하게 느껴졌다. 목은지와 쌈장도 가게에서 직접 담아 안주인의 손맛이 그대로 전해졌다. 1인분(200g)에 삼겹살은 1만3,000원, 가브리살은 1만4,000원, 항정살은 1만5,000원이다. 고기를 먹은 후 후식으로 냉면과 된장찌개, 소면, 볶음밥 등이 있었다. 그중 된장소면이 눈에 띄었다. 된장소면은 토속적인 맛으로 구수했다. 마

지막 입가심으로 깔끔해서 좋았다. 또 1인 1누룽지 서비스에 주인의 정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다. 솔뚜껑 삼겹살과 후식이 기대이상으로 맛있어 삼겹살이 먹고 싶은 때 다시 생각날 것 같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취임사

현종길 홍천읍 노인회장

“경로당을 어르신 최고의 보금자리로 만들겠다”



“경로당을 할아버지·아버지·손주 등 3세대가 아우르는 소통의 문화 공간으로 정착 시키겠다.”

현종길(80)홍천읍 노인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취임 일성으로 “자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해 세대 간 화합

지원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홍천군노인회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경로당 운영을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회장은 “80대 전후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에 이어 해방과 전쟁까지 경험한 이후 조국 근대화라는 명분아래 주립의 고통을 겪으면서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땀을 흘려 우리나라를 세계 7위라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든 주역”이라

했다.

현 회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명이 사망하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며 “노(老)자는 늙음과 더불어 숙달, 경륜, 노련 등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노인정 신설과 대한노인회의 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밝혀 지지입장을 나타냈다.

현 회장은 북강원 이천면이 고향으로 어릴 때에 월남한 이후 강릉시, 원주에서 생활하다 공군을 제대한 이후 홍천에 정착해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 제일서점 등을 운영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80대 전후세대, 최빈국을 세계7대 강국 만든 주역들
빈곤과 홀로 지내며 병중인 어르신 돌보는 일에 최선**

을 통해 존경받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노인상을 만들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경로당을 어머니의 품과 고향처럼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홍천읍 노인회 사무국장을 7년을 역임한 현 회장은 어르신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하고 홀로 지내며 병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돌보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어르신 복지과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경로당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분회 임원을 구성해 경로당 회원들과의 소통하고, 지역기관·단체와의 유대 강화, 경로당 자매결연 재정비 및 확대로 경로당 운영

고 했다. 또 “전쟁과 배고픔의 고통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유례가 없는 가장 짧은 기간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시킨 경험과 지혜를 전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7위의 대국으로 성장시킨 자랑스러운 세대임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 안타깝지만 다행히 노인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반갑다”고

홍천군지회 사무국장, 홍천군 방범위원장, 홍천군 새마을협의회장, 홍천읍 노인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말에 홍천읍 노인회장에 취임했다. 2020년 1남 5녀의 자녀를 훌륭하고 바르게 키운 장한 아버지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누구나 자기네 집을 가리켜 말할 때 ‘우리 집’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비바람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함은 물론 사생활을 집이라는 곳에서 지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편히 쉬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집인 것이다. 예전에는 가정에 대소사를 모두 집에서 치러 왔고, 지금까지도 전 세 집이나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함께 살아왔다.

우리 집이 없는 사람은 고향없는 나그네였다. 그러기에 집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크고 호화롭게 꾸미려는 욕심

을 누구나 가지는 것이다.

재산증식이 다양화되면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언제라도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우리 집이 아닌 팔 집에 너도나도 투기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택의 개념을 넘어 투자 상품의 대상이 되어 한사람이 많은 집을 사들여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소시민의 꿈인 우리 집 갖기는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같이 가격도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서, 국가정

책을 원망하며 목 아프게 올라다보면 한숨만 난다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자기네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 다만 그들 자신의 몸뚱이가 집이다. 이 중에는 가장 단단한 집을 가지고 있는 조개나 다슬기도 있는가 하면, 거북이도 있고 몸이 커질 때마다 집을 새로 만드는 갑각류나 파충류도 있으며, 일부 곤충도 있다. 또 연약하더라도 껍질이 이들의 집인 썸이래 이들은 집을 짓지 않고도 자연을 이

용하여 잘 살아간다.

이들 중에는 새끼를 낳고 키우기 위하여 그때만 외부의 환경과 침입자를 막고 온도를 맞추어 주기 위해 집을 짓고 새끼를 다 키우고 나서는 미련 없이 집을 버린다.

사람 역시 집을 짓고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몸은 방수이고 머리카락도 비와 열을 막아주며 보온의 털도 있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육체적 조건이 부실해 이를 보완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집과 내 집

서 집을 짓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다. 그리고 내 집은 나의 몸뚱이가 내 집이다.

내 집은 흙과 바닷물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완벽한 구조와 효능으로 만들어진 몸뚱이인 내 집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라면서 집이 커졌고 이 집을 잘 가꾸고 망가지는 부분을 고치고 늘러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관리를 못 하면 허물어지고, 아무리 좋은 튼튼한 집이라도 그 내용 연수인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에 언젠가는 내 집도 노후 되어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나도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요즘은 내가 돌아가기 전에 내 집이 아직은 쓸 만하니 누군가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도 한다.

내가 떠나면 쓸 만한 집이라 대들보와 서까래도 누군가의 집을 리모델링 하고 방을 덥히던 보일러, 밝히던 전등 등 얼마든지 재활용하는데 실제 그가 돌아가면 다른 집을 수리하는데, 재활용해서 많은 집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래 사용해 수명을 다한 집은 태워지든가 흙으로 돌아간다.

내 집은 나의 몸뚱이라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은 우리 집이다. 만약에 아무도 같이 살지 않고 혼자서 큰집을 소유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없고 내 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내 집이 두 개나 있으니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내 집을 가지고 또다시 내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 하나만 장만하자. 내 집이 또 필요하다면 빈방을 구하라 빈방은 남아돌고 있으니 말이다.